

이어도 소개 자료

(작성: 사단법인 이어도 연구회, 2021년 7월)

이어도의 위치

이어도는 한·중·일 3국 중 한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다. 중국의 ‘서산다오(余山島)’에서는 155해리(287km), 일본의 도리시마(鳥島)에서 149해리(276km) 떨어져 있지만, 우리나라의 마라도(馬羅島)에서는 80해리(149km) 떨어져 있다.

이어도의 법적 지위

이어도는 ‘말 그대로의’ 섬(島)은 아니다. 이어도는 수중 암초(rock)로서 가장 얕은 곳은 해수면 아래 4.6m에 위치한다. 수심 40m를 기준으로, 남북 약 600m, 동서 약 750m에 이른다. 이어도 주변은 굴곡이 매우 심하고 복잡한 해저 지형 분포를 보인다. 정상부를 기준으로 남쪽과 동쪽은 급경사를, 북쪽과 서쪽은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이어도를 섬(島)으로 부르는 이유는, 이어도가 제주의 전설에 나오는 환상의 섬, 피안(彼岸)의 섬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과거 제주도민 사이에선 이 섬을 보면 돌아올 수 없다는 전설이 있다. 이는 먼 옛날 이곳에서 고기잡이하다가 파도가 10m 이상이 되면 이 섬이 보였고, 당시 고기잡이배로는 그런 상황을 벗어나 무사 귀환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 간 이어도 문제의 본질

이어도는 수중 암초이므로 섬과 같은 영토가 아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 간에 진행되고 있는 해양경계획정 협상 문제이다. 한국과 중국 사이의 바다의 거리는 236해리(436km)에 불과하다. 1982년 체결한 유엔해양법협약은 연안국 간 배타적 경제수역(EEZ) 해역의 폭이 200해리(370.5km)의 두 배인 400해리(741km)가 되지 않으면, 당사국은 협상을 통해 해양경계를 확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어도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역사

오늘날 이어도는 1900년 영국 상선인 소코트라 호(Socotra)가 처음 발견하여 그 선박의 이름을 따서 ‘소코트라 암초(Socotra Rock)’로 명명되었다. 1910년, 영국 해군 측량선 워터위치 호(Waterwitch)는 수심 5.4m의 암초로 확인되었다. 1938년에는 일본이 해저전선 중계시설과 등대를 설치할 목적으로 직경 15m, 수면 위로 35m에 달하는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무산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이어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이른바 ‘이어도 실재론’이 처음 대두된 것은 1950년 이후이다. 1951년 5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초안이 나온 시점부터 시작된 파랑도의 존재에 대한 논의는 9월 8일 조약이 체결되고, 그 이후인 9월 20일 ‘파랑도학술조사대’가 꾸려져 해군 함정을 동원한 탐사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실제 확인에는 실패했다.

이어도의 실체는 1984년에 확인할 수 있었다. 1984년은 이어도 탐사에 가장 적극적이면서 성공적이었던 시기로, KBS와 제주대학교 해양대학이 파랑도 탐사에 성공했다(당시 이어도를 ‘파랑도’라고 명명).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한국해양소년단 제주연맹의 파랑도 탐사에 성공했다.

실체가 드러난 이어도는 1986년 해군 수로국(현 국립해양조사원) 조사선에 의해 암초 수심이 4.6m로 측량되었다. 이어서 1987년에 해운항만청은 ‘이어도 등부표’를 설치했다.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기 위해 1995년 해저 지형을 파악하고 조류를 관측하는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2001년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착공에 들어갔고 2003년 6월 완공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끝/